
일반논문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설화권 설정 시론(試論)

이 헤 란*

[초 록]

이 글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설화권역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방언권과 민속권의 비교를 통하여 그 설화권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변이를 토대로 가설로 제시한 설화권역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은 해당 설화가 문화권이라는 특정 공간 속에서 오랜 기간 삶과 문화를 공동으로 축적해 온 공동체의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이 해당 설화에 나타나는 ‘문화적 표현’의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제시된 설화권역이 가설이기 때문에 그 경계 또한 어설프게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방언권과 민속권의 비교를 통해 그 경계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각 설화권역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편의 변이를 도출하여 지도에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도깨비, 도깨비고사, 여위다, 문화권, 설화권, 방언권, 민속권
Doggaebi, Doggaebi-gosa, Yeowida, Kulturkreise, Regional Tale Zone, Regions of Dialect, Region of Folklore

기호화하였다. 해당 설화는 주인공이 ‘도깨비를 만나는 과정’과 도깨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도깨비를 퇴치하는 과정’이 활발한 변이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깨비를 만나는 과정’에서는 주인공과 도깨비와의 ‘만남 매개’와 ‘만남 계기’가 활발한 변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깨비를 퇴치하는 과정’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도깨비의 대응’이 활발한 변이를 보이며 해당 설화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지도에 기호화한 결과 해당 설화의 권역을 평안도 일대로 구분되는 <권역 A>,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권역 B>, 전라도에 해당하는 <권역 C>, 경상도에 해당하는 <권역 D>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시한 설화권역이 가설이기 때문에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서 표현되는 ‘여위다’의 방언 분포도와 방언권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권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는 아직까지 15세기 어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대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민속권과도 비교하였다.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도깨비고사를 토대로 지도에 기호화하여 그 분포를 확인한 결과 <권역 B>에서는 도깨비가 ‘섬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권역 C>에서는 ‘퇴치의 대상’으로서의 도깨비가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어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추론하였다. 때문에 문화권이라는 특정 공간 속에서 설화 또한 공동체의 특성을 담아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화에서도 최소한의 ‘문화적 표현방식’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이 글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설화권역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방언권과 민속권의 비교를 통하여 설화권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화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설화의 변이를 토대로 그 문화권의 미학이나 이데올로기, 가치관, 관습 등의 변화를 유추하여 문화권

의 특성을 식별하고자 하는 것이다.¹⁾ 이러한 문화권 특성의 식별은 해당 설화가 문화권 안에서 어떠한 적응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권의 경계는 어설피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언권과 민속권의 비교를 통해 그 경계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도깨비는 한국적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험담으로 전해지는 도깨비는 우리 민족의 토착신격으로 부신(富神), 풍어신(豐漁神), 가업수호신(家業守護神), 역신(疫神), 야장신(冶匠神)으로 여기어 섬기기도 하지만 귀신이나 요괴로서의 관념으로 퇴치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깨비담은 신화적이면서도 전설적이며, 민담적 성격을 띠며 경험담의 특징 또한 아우르며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 즉 도깨비담은 설화의 하류분류인 신화, 전설, 민담의 어느 영역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이를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이야기는 도깨비와 사귀면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선험적(先驗的) 의식이 기반이 되어 부를

- 1) 이는 스웨덴의 민속학자 시도우(Carl Wilhelm von Sydow)에 의해 창안되었다. 논자는 구전설화의 오이코타입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구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식물학에서 유래한 오이코타입은 특정 환경(해변, 산지 등)에 적응된 같은 종의 유전적 식물변이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개념은 구비전승 되는 이야기들이 특정 문화 지역에 적합한 형태(하위)로 유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민속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Sydow, Carl Wilhelm von (1999), *Geography and Folk-Tale Oicotypes, International Folkloristics: Classic Contributions by the Founders of Folklore*, edited by Alan Dundes, Rowman&Littlefield, p. 145. 본고에서는 오이코타입이 그 문화권에서의 적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형’이라 명명하여 논의하도록 하였다.
- 2) 강은혜는 도깨비의 초월적 신성에 대한 종교적 신앙이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새로운 질서로 변질되어 이야기 化된 것은 준신화(準神話)라 명명하고, 도깨비의 초월성이 세속적인 사고와 대체된 것을 반신화(反神話),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를 사실이라 믿는 경험담과 완전히 거짓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변용된 것은 순수민담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화자와 청자의 의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 논의하였다. 강은혜 (1985), 「한국 도깨비담의 形成·變化와 構造에 關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조.

획득하는 과정이 전승된다. 이 이야기는 도깨비의 초월적 신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문화에 적응하면서 결국에는 도깨비를 퇴치하기에 이른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가 포함된 도깨비담은 任東權이 「도깨비考」에서 도깨비의 특징적인 면을 고찰³⁾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도깨비의 신앙적 측면⁴⁾ 뿐만 아니라 도깨비의 어원⁵⁾과 원형⁶⁾에 주목하기도 하고, 심리학적 측면⁷⁾을 비롯하여 연금술⁸⁾과 관련된 논의에서 더 나아가 기호학적 측면⁹⁾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또 도깨비담의 구조와 특징¹⁰⁾, 지역적

-
- 3) 임동권(1971), 「도깨비考」, 『韓國民俗學論考』, 집문당, pp. 114-122.
 - 4) 장주근(1972), 「제주도 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 『국어교육』 18, 한국어교육학회, pp. 457-471; 장주근(1975), 「도깨비와 배서낭」, 『한국의 향토신앙』, 을류문화사, pp. 109-119; 임동권(1981), 「민간신앙에서의 도깨비」, 『한국의 도깨비』, 국립민속박물관, pp. 7-22; 문무병(1990), 「제주도 도깨비담 연구」, 『탐라문화』 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 193-234; 김종대(1993), 「해안지방 도깨비 신앙의 전승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pp. 143-169; 김종대(1994), 「민담과 신앙을 통해본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참조; 송기태(2011), 「도깨비 신앙의 양가성과 의례의 상대성 고찰」, 『남도민속연구』 22, 남도민속학회, pp. 169-194; 김종대(2012),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 도깨비 양상과 그 변화」, 『한국민속학』 56, 한국민속학회, 2012, pp. 41-65.
 - 5) 박은용(1986), 「목량고 — 도깨비 어원고」, 『한국전통문화연구』 2,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53-64; 박기용(2015), 「불교설화로 본 도깨비 어원연구」, 『우리말글』 67, 우리말글학회, pp. 139-165.
 - 6) 강은혜(2003), 「도깨비의 정체」, 『한국학논집』 3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1-30; 강은혜(2004), 「대장장이 신화와 야장체험」, 『한국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pp. 168-211.
 - 7) 이부영(2003), 「도깨비의 심리학적 측면과 상징성 — C.G Jung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한국학논집』 3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 175-203.
 - 8) 김정란(2009), 「도깨비 설화와 연금술」, 『비교문학』 48, 한국비교문화학회, pp. 207-240.
 - 9) 송효섭(2004), 「도깨비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1, 한국기호학회, pp. 101-145.
 - 10) 강은혜(1985), 「한국 도깨비담의 형성 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채영(1990), 「도깨비 민담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종대(1992), 「도깨비담(譚)의 구조적(構造的) 변이양상(變異樣相)에 대한 고찰(考察) :

도깨비담의 전승 양상과 성격을 살펴 그 특징을 도출하기도 하였다.¹¹⁾ 이렇듯 도깨비담은 여러 방면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특정 설화에 대한 연구보다는 포괄적인 도깨비담의 연구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역적 특징 또한 특정 지역의 설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깨비담에 해당하는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라는 특정 설화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 설화의 변이를 도출하여 지도에 기호화하였다. 그리고 그 분포양상을 살펴 설화권역을 제시한 뒤 제시한 설화권역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방언권과 민속권과도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권에 따른 최소한의 ‘문화적 표현방식’을 찾는 것으로 설화의 지역적 특성 연구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도깨비 사귀어 덕보기>의 변이 양상 및 설화권

<도깨비 사귀어 덕보기>는 오히려 가난한 주인공이 도깨비를 만나 부를 획득하는 이야기이다. 즉 결손이 보상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도깨비 사귀어 덕보기>는 『한국설화유형분류집』의 ‘6 오고 가기’ 유형 중 도깨비와 어울리다 정신차리기에 해당하며 옛듣고 속이고 사귀는 것을

전라도(全羅道) 해안지방(海岸地方)을 중심으로, 『문화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pp. 114-134; 김승일(2000), 「도깨비담 구조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혜련(2006), 「도깨비 설화의 구조와 의미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11) 서경수(2002), 「도서지역의 도깨비담 연구, 신안군의 전승자료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선희(2018), 「제주도 도깨비담의 특징」, 『인문학연구』 25,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31-63쪽; 송기현(2019), 「도깨비 설화의 장소성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모두 포함하여 634-8로 분류하였다.¹²⁾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60편과 『한국구전설화』 18편으로 총 78편을 대상으로 한다.¹³⁾ 이들 자료는 평안북도 7편, 경기도 8편, 강원도 6편, 충청북도 1편, 충청남도 3편, 전라북도 2편, 전라남도 24편, 경상북도 12편, 경상남도 12편, 제주도 3편이 각각 채록 보고되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각편들과 그 변이 양상을 제시하면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설화 자료

연번	설화제목	채록지	제보자(성별)	출전
1	도깨비 말을 엿듣고	평안북도 용천 장하	최덕용(남)	한국구전설화 2
2	도깨비 말을 엿들은 사람	평안북도 정주 관주 정주 안흥 선천 천북	정성월(남) 박조신(남) 이재연(남)	한국구전설화 2
3	도깨비를 죽인 사람	평안북도 의주 고진	장준식(남)	한국구전설화 2
4	도깨비를 죽인 사람	평안북도 선천 심천	김원색(남)	한국구전설화 2
5	도깨비를 속인 사람	평안북도 선주 선천	김희덕(?)	한국구전설화 2
6	도깨비를 속여서 부자가 됨	평안북도 의주 월화	최규형(남)	한국구전설화 2
7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	평안북도 용천 부나	김일도(남)	한국구전설화 2
8	도깨비는 메밀묵을 즐긴다	경기 강화 상주	박영주(남)	『대계』 1-7

12) 조동일 외(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548-550.

13) 구전설화가 학술자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술에 충실해야 하고, 채집데이터가 명시되어야 하며, 구술자의 표현을 그대로, 즉 방언을 있는 그대로 옮겨 현상의 생동감까지 표현할 때 비로소 학술자료로서 기능한다. 최상수(1994), 「70년 걸린 본격구전설화의 채록자료집」, 『한국문학인류학』 26, 한국문화인류학회 참조. 그러한 면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는 학술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자료량도 많고 최근에 채집되어 채집지역에 한계가 있다면, 『한국구전설화』는 2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자료이며, 북한 자료까지 채집되어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술자료로 입증된 두 자료집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연번	설화제목	채록지	제보자(성별)	출전
9	도깨비한테 돈 꾸 이야기	경기 강화 길산	김순이(여)	『대계』 1-7
10	도깨비 사귀어 부자 된 이야기	경기 강화 양도	윤태선(남)	『대계』 1-7
11	도깨비를 이용한 인간	경기 용진 영중	최영화(남)	『대계』 1-8
12	도깨비 이야기(4)	경기 용진 영중	장재순(남)	『대계』 1-8
13	도깨비 말 듣고 잘 된 아우	경기 용인 원삼	권은순(여)	『대계』 1-9
14	도깨비의 生能	경기 양주 화도	이인계(남)	한국구전설화 5
15	도깨비와 영감	경기 천연정 신전국조	??	한국구전설화 5
16	괴질막은 최씨노인	강원 강릉 흥제	함중태(남)	『대계』 2-1
17	도깨비 이야기	강원 충성 통곡	민봉호(남)	『대계』 2-2
18	도깨비가 묘를 써 쥐 영의정 된 선비	강원 양양 하왕도리	양재춘(남)	『대계』 2-5
19	도깨비 작난	강원 횡성 부동리	고종천(여)	『대계』 2-7
20	도깨비가 준 횡재	강원 영월 영흥	한준혁(남)	『대계』 2-8
21	명당구리 도깨비	강원 영월 영흥	유성철(남)	『대계』 2-9
22	도깨비 이야기	충북 청원 미원	홍종운(남)	『대계』 3-2
23	말피를 무서워하는 도깨비	충남 대덕 신탄진	신성례(여)	『대계』 4-2
24	도깨비 심술	충남 대덕 구죽	김중관(남)	『대계』 4-2
25	게으른 자의 행운	충남 공주 이인	김현상(남)	『대계』 4-6
26	도깨비의 보은	전북 정읍 태인	서보익(남)	『대계』 5-6
27	도깨비를 속여 부자된 부부	전북 정읍 입암	신금순(여)	『대계』 5-6
28	소금장사와 도깨비	전남 진도 지산	박병천(남)	『대계』 6-1
29	도깨비와 강부자	전남 함평 월야	지춘상(남)	『대계』 6-2
30	도깨비 돈으로 산 땅	전남 함평 신광	정전암(여)	『대계』 6-2
31	도깨비와 과부	전남 고흥 서문	박봉천(남)	『대계』 6-3
32	도깨비의 보은	전남 고흥 점암	마영식(남)	『대계』 6-3
33	재치로 도깨비를 떼어낸 과부	전남 승주 낙안	송한석(남)	『대계』 6-4
34	도깨비 도움으로 부자된 나무꾼	전남 승주 낙안	장영호(남)	『대계』 6-4
35	도깨비 이야기	전남 해남 삼산	이난재(여)	『대계』 6-5
36	인도깨비의 중매	전남 신안 압해	오금열(여)	『대계』 6-6
37	장담 센 사람과 도깨비의 도움	전남 신안 하의	강은상(남)	『대계』 6-6
38	도깨비가 정해 준 명당	전남 신안 하의	제갈남춘(남)	『대계』 6-6
39	도깨비가 가르쳐 준 명당	전남 신안 압태	정금례(여)	『대계』 6-6
40	결의 의형제 맺은 김동이와 박동이	전남 신안 중도	강엽춘(남)	『대계』 6-7
41	귀신과 도깨비를 친구로 둔 사람	전남 신안 신의	고자산(남)	『대계』 6-7
42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전남 신안 흑산	이상지(남)	『대계』 6-7
43	오줌 싼 자갈	전남 신안 흑산	박옥동(남)	『대계』 6-7
44	도깨비를 사귀 사람	전남 평창 복흥	김병섭(남)	한국구전설화 8

연번	설화제목	채록지	제보자(성별)	출전
45	인도깨비 사위	전남 부안 백산	오기술(남)	한국구전설화 8
46	도깨비를 사귀 사람	전남 금제공립보통학교	이명호(남)	한국구전설화 8
47	총각과 처녀와 도깨비	전남 금제공립보통학교	김창준(남)	한국구전설화 8
48	신의 없는 어부와 도깨비	목포공립여자보통학교	이권순(남)	한국구전설화 9
49	도깨비와 각시	전남 여천 삼산	장유상(남)	한국구전설화 9
50	여자와 도깨비	전남 화순 동북	오덕기(남)	한국구전설화 9
51	도깨비를 속인 여자	목포공립여자보통학교	최순택(여)	한국구전설화 9
52	도깨비가 무서워 하는 것	경북 월성 현곡	이선재(여)	『대계』 7-1
53	토재비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자된 사람	경북 월성 외동	박동준(남)	『대계』 7-2
54	토재비와 팻죽	경북 월성 외동	김봉조(남)	『대계』 7-2
55	도깨비가 지은 집	경북 영덕 창수	권태방(남)	『대계』 7-6
56	토재비 돈	경북 영덕 탈산	조유란(남)	『대계』 7-6
57	도깨비 사귀어 부자된 사람	경북 대구 동구	진능선(여)	『대계』 7-13
58	도깨비가 준 북	경북 대구 북구	김봉환(남)	『대계』 7-13
59	어리석은 도깨비	경북 대구 수성	정기조(남)	『대계』 7-13
60	도깨비 덕분에 부자된 김선달	경북 구미 원평	이기술(남)	『대계』 7-13
61	자기 재물 찾으려는 도깨비	경북 선산 고아	손옥순(남)	『대계』 7-16
62	도깨비와 상주	경북 선산 장천	김봉열(남)	『대계』 7-16
63	도깨비 신랑	경북 진주	손영숙(여)	한국구전설화 10
64	김서방과 도깨비	경남 거제 장목	김삼련(남)	『대계』 8-1
65	윤대감과 도깨비	경남 거제 연초	옥영희(여)	『대계』 8-1
66	참도깨비의 사랑	경남 거제 동부	김주악(여)	『대계』 8-2
67	도깨비 신랑	경남 진양 수곡	박순악(여)	『대계』 8-3
68	도깨비 쫓기	경남 진양 수곡	박순악(여)	『대계』 8-3
69	도깨비와 슬기 다툼	경남 진양 금곡	류재원(남)	『대계』 8-3
70	도깨비와 처녀	경남 거창 가지리	주필득(여)	『대계』 8-5
71	도깨비와 착한 며느리	경남 거창 가지리	주필득(여)	『대계』 8-5
72	다리밀 도깨비	경남 거창 북상	권기동(남)	『대계』 8-6
73	도깨비 만나 잘 산 이야기	경남 거창 마리	황천석(남)	『대계』 8-6
74	도깨비 땅 떼어 가는 소리의 유래	경남 밀양 삼량진	이귀조(여)	『대계』 8-8
75	과부와 도깨비	경남 울주 상북	우두남(여)	『대계』 8-13
76	도재비	제주 구좌 서감령	안용인(남)	『대계』 9-1
77	원산 도재비	제주 구좌 서감령	안용인(남)	『대계』 9-1
78	돈으로 원수 갚은 구렁이	제주 노형동 광평	현성언(남)	『대계』 9-2

<표 2>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변이 양상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1	남성	쓰러져 가는 집	×	엿듣기	×	×	×	×	富
2	남성	빈절	×	엿듣기	×	엿들은 내용 실행	×	×	富
3	아버지	집	성교	사귀기	- 황가이국(누런 개로 끓인 국)을 무서워 한다. - 대동강 다리 밑에 잘 모인다.	×	황가이국 붓기	×	富
4	남성	넷가	음식	사귀기	- 장난을 좋아한다.	×	끓는 물 붓기	×	富
5	남성	×	×	사귀기	- 짐승 피를 무서워 한다.	×	소피 뿌리기	돈	富
6	총각	산	×	사귀기	- 가이고기국(개고기국)	×	가이고기국 뿌리기	돈	富
7	남자	도깨비당	×	섬기기	- 도깨비를 섬기면 부자가 된다. - 돈을 뺏기기 전에 도깨비를 죽여야 한다. - 황가이국으로 물리칠 수 있다. - 도깨비 돈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젓어있다.	도깨비당 짓기	×	×	富
8	남성	땅	음식	사귀기	- 메밀묵을 좋아한다. - 장난을 좋아한다. - 귀신같이 여김.	주인공의 기지	×	땅 떼기	富
9	남성	×	돈 벌리기	사귀기	- 친하면 잘 가져온다.	땅 사기	×	땅 떼기	富
10	남성	힘지	조우	사귀기	- 말을 하는 도깨비가 어렵다. - 장난을 좋아한다. - 사귀면 부자 된다.	장난에 담대	×	×	富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11	남성	공동 묘지	돈 벌리기	사귀기	- 인과응보에 의해 생긴다. - 이용하면 부자 된다. - 장난을 좋아한다. - 변덕이 심하다. - 장난에 담대하게 대해야 한다. - 질경이 기름으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부엌이 고기를 좋아한다. - 쥐고기를 먹으면 죽는다. - 염력을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못한다. - 사람 형태와 같다.	주인공의 기지	쥐고기를 준다.	농사 (자갈)	부
12	×	놀음판	내기	사귀기	- 참 도깨비는 무섭다. - 팔뚝에 털이 많다. - 놀음판에서 개평을 뜯는다.	- 접장신 (接長神)을 이기기 - 부동산 사기	×	땅 떼기	×
13	동생	복떡 까리	×	엿듣기	×	엿들은 내용 실행	엿들은 내용 실행	×	부
14	부부	집	×	×	- 돈을 가져다준다. - 떡과 메물묵을 좋아한다. - 잔치를 베풀자 준 돈을 내놓으라 한다.	땅 사기	×	땅 떼기	부
15	남성	집	×	사귀기	- 백마대거리와 닭피를 무서워한다.	×	- 닭피 뿌리기 - 백마 대거리 매달기	돈	부
16	남성	꿈	음식	섬기기	- 개고기를 좋아한다.	×	×	×	괴질 막음
17	남성	돌담	×	엿듣기	×	엿들은 내용 실행	×	×	부
18	남성	길	×	섬기기	- 사람 형상과 같다. - 약속을 지킨다.	묘 쓰기	×	×	영의정이 됨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19	남성	길	음식	섬기기	- 심통을 부린다. - 수수밥과 말고기를 좋아한다. - 재산을 가져간다.	×	×	×	실패
20	남성	상점	돈 빌려 주기	사귀기	- 키가 구척이나 되고 고래 장송같다. - 돈을 매일 갚는다. - 도깨비가 보복할 수 있다.	땅 사기	개를 잡아서 뿌리기	땅 떼기	富
21	남성	집	돈 빌려 주기	사귀기	- 돈을 매일 갚는다. - 개고기를 좋아한다. - 말고기를 싫어한다.	땅 사기	말대거리 매달기	돈	富
22	남성	논	×	사귀기	- 김아무개라 소개한다. - 대갱이와 메우리 풀대를 좋아한다. - 도깨비가 죽는다.	땅 사기	×	×	富
23	홀어머니	집	×	사귀기	- 말 피를 무서워한다. - 방망이를 사용한다.	땅 사기	말피를 뿌린다.	땅 떼기	富
24	남성	논	씨름 하기	사귀기	- 메물묵을 좋아한다. - 백마피를 싫어한다.	주인공의 기지	말피를 뿌린다.	농사 (자갈, 개똥)	富
25	소금장사	빈집	×	엿듣기	×	엿들은 내용 실행	×	×	富
26	부부	×	음식	사귀기	- 메물묵을 좋아한다. - 씨름을 좋아한다.	묘 쓰기	×	×	富
27	부부	집	아내와의 성교	사귀기	- 친하면 잘 가져온다. - 말피를 무서워한다. - 도깨비와 성교하면 핏기가 없어진다. - 피랭이를 쓴 놈	땅 사기	말피 뿌리기	농사 (개똥)	富
28	소금장사	무서운 골짜	×	사귀기	- 대낮에 또깨비가 나온다. - 죽은 사람으로 나타난다. - 소 간을 좋아한다. - 백구를 무서워한다.	×	묻기	약담	×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29	조박사	도깨비가 쉬는 곳	음식	사귀기	- 인도깨비는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 개도깨비는 까불기만 한다. - 메밀묵을 좋아한다. - 개고기를 좋아한다.	땅 사기	×	×	富
30	×	×	×	×	- 도깨비가 준 돈으로 땅을 사야 한다.	×	×	×	×
31	과부	집	성교	사귀기	- 돈을 가지고 온다. - 도깨비 살이 거칠다. - 말피를 무서워한다.	땅 사기	말피 뿌리기	×	富
32	어부	외곳	음식	섬기기	- 커다란 사람 형상 - 노랑내가 난다. - 은혜를 갚는다.	만선	×	×	富
33	과부	집	성교	사귀기	- 말대가리를 무서워한다. - 돈을 가지고 온다.	×	말대가리 매달기	농사 (똥)	富
34	남성	탐성골	돈 빌려 주기	사귀기	- 키가 크다. - 돈을 가지고 온다.	땅 사기	아들의 기지	농사 (자갈)	富
35	과부	집	성교	사귀기	- 돈을 가지고 온다. - 말대가리를 무서워한다(말은 밤길을 잘 걷는다).	땅 사기	말대가리 매달기	농사 (자갈)	富
36	어부	길	조우	섬기기	- 총각아이 - 인도깨비 - 도깨비가 절을 한다. - 바다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물고 온다. - 중매를 선다.	만선	×	×	富
37	장담 센 남성	독담	조우	×	- 뉘새를 풍긴다. - 사람을 돕는다. - 도깨비	×	×	×	장담 세다 인정
38	남성	길	조우	엿듣기	- 죽은 사람 제를 지내 준다. - 도깨비	묘 쓰기	×	×	富
39	남성	길	조우	×	- 돌구머리 사람 형상 - 도깨비	묘 쓰기	×	×	富
40	박동이	집	조우	엿듣기	- 도깨비들이 회의를 한다.	엿들은 내용 실행	×	×	富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41	남성	×	×	사귀기	- 말껍데기를 무서워한다. - 도깨비라 명명한다.	도깨비 속이기	말피 뿌리기	×	富
42	남성	길	조우	섬기기	- 도깨비가 씌름하자 내기한다.	×	×	×	위기 모면
43	남성	×	음식	사귀기	- 귀신이 예인으로 도와준다.	시키는 대로 하기	주인공의 기지	농사 (자갈)	×
44	남성	길	음식	사귀기	- 메밀범벅을 좋아한다. - 징서병이라 칭한다. - 각사를 구해주기도 한다. - 말가죽을 싫어한다.	땅 사기	×	×	富
45	아버지	집	딸	사귀기	- 인도깨비 - 말 대구박, 소피, 개를 무서워한다.	×	- 말 대구박 매달기 - 소피 뿌리기 - 개 묶어놓기	돈, 땅 떼기	富
46	남성	×	음식	사귀기	- 메밀묵을 좋아한다. - 괴수도깨비 - 사귀면 부자 된다.	명당	×	×	富
47	치녀	집	성교	사귀기	- 말피를 싫어한다. - 터벅머리 총각놈	×	말피 뿌리기	×	富
48	남성	바다	음식	사귀기	- 메밀묵을 달라고 한다.	×	×	배를 바다에 빠트리기	실패
49	여성	산	성교	사귀기	- 물데그박(말대가리)을 무서워한다.	×	말머리 매달기	찰떡	×
50	여자	집	성교	사귀기	- 도깨비는 메밀묵을 좋아한다. - 물 데그박(말대가리)을 무서워한다.	×	말대가리 매달기	돈, 땅 떼기	富
51	여자	집	성교	사귀기	- 토게비는 물 데그박(말대가리)을 무서워한다.	땅 사기	물 데그박 매달기	농사 망치기	실패
52	남성	길	조우	사귀기	- 직접 도깨비라 밝힌다. - 말피를 무서워한다. - 놀아주면 원하는 것을 준다.	놀이	말피 뿌리기	×	富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53	남성	길	돈 빌려 주기	사귀기	- 돈을 준다. - 백말 피를 싫어한다. - 토째비는 地神이다.	논 사기	말피 뿌리기	×	富
54	×	강변	음식	사귀기	- 팔죽을 좋아한다. - 돈을 가져다준다. - 개의 피를 싫어한다.	땅 사기	개피 뿌리기	땅 떼기	富
55	남성	×	짚신 주기	사귀기	- 토째비가 안동 임청각을 지었다. - 참 토째비는 사람을 돕는다.	×	땅 떼기라고 하기	×	富
56	남성	까시 담불	×	사귀기	- 여자 토째비가 구슬을 입에 넣는다. - 돈을 준다. - 팔죽을 싫어한다. - 백말 피를 싫어한다.	땅 사기	팔죽과 백마 피	땅 떼기	富
57	과부	산중 초가집	성교	사귀기	- 토째비는 잘 아는 이웃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 팔죽을 좋아한다. - 백마 피를 무서워한다. - 백장닭 피도 무서워한다.	땅 사기	백마 피, 백장닭 피 뿌리기	×	富
58	부부	수박밭	수박	×	- 윗도리만 보이고 아랫도리는 안 보인다. - 심술맞다.	땅 사기	×	×	富
59	남성	집	조우	사귀기	- 토째비는 사람과 반대로 행동한다. - 어리숙하다. - 백마 피를 무서워한다.	×	백마피 뿌리기	땅 떼기	×
60	김선달	방천 독 너머	음식	사귀기	- 툇째비는 뱀이나 개 구리를 먹는다. - 툇째비와 친하게 지내면 부자된다. - 사람과 친해지기 전에는 사람을 보면 도망간다. - 개고기를 좋아한다. - 백마피를 싫어한다. - 툇째비를 오래 사귀면 재산을 뺏긴다.	땅 사기	백마피 뿌리기	땅 떼기	富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61	남성	논	×	×	- 토재비	땅 사기	×	땅 떼기	富
62	남성	굴	음식	섬기기	- 토재비는 술을 좋아한다.	묘 쓰기	×	×	×
63	여성	집	성교	사귀기	- 토재비는 물 대가리(말대가리)을 무서워한다.	땅 사기	물 대가리 매달기	땅 떼기	富
64	김서방	골짜기	×	엿듣기	×	×	×	×	富
65	윤대감	집	×	×	- 키가 팔대장 같이 크다. - 백말 대가리를 무서워한다.	주인공의 기지	백말 대가리 매달기	돈	富
66	딸	외파로 집	성교	사귀기	- 엄두리 총각 - 동산 갭(도깨비) - 흰 것을 무서워한다(백마, 흰강아지, 백 당나귀). - 참도깨비 재산은 모래나 돌로 변한다. - 도깨비와 성교하면 마른다.	×	백 강생이 삶아 뿌리기	×	실패
67	여성	×	성교	사귀기	- 말대가리를 무서워한다. - 토재비	땅 사기	말 대가리 매달기	보배	富
68	여성	×	성교	사귀기	- 토재비와 살면 마른다. - 백상(흰) 강아지를 무서워한다. - 토재비와 정이 떨어지면 토재비 재산은 없어진다.	×	백상 강아지 이불 밑에 넣기	금	富
69	×	×	×	사귀기	- 개피를 무서워한다.	주인공의 기지	개피 뿌리기	엽전	富
70	여성	×	성교	사귀기	- 토재비와 오래 사귀면 에비다(아된다). - 당나구 피를 무서워한다.	땅 사기	당나구 피 뿌리기	엽전	富
71	머느리	도치기 집	음식	×	- 도치기는 덕을 쌓아야 한다.	×	×	×	富

연번	주인공	만남			도깨비의 특징	부자 되는 방법	도깨비의 퇴치		목적
		장소	매개	계기			주술적	대응	
72	남성	다리 밑	음식	섬기기	- 토깨비는 메밀묵과 개고기를 좋아한다. - 피래(파랭이)를 쓴 놈	묘 쓰기	×	×	富
73	남성	산	음식	사귀기	- 개고기를 좋아한다. - 도깨비	묘 쓰기	×	×	富
74	처녀	집	성교	사귀기	- 엄두리 총각 - 백말 피를 무서워한다. - 처녀의 얼굴이 노랗게 변해간다. - 토째비	망 사기	백마 피 뿌리기	돈	富
75	과부	집	성교	사귀기	- 백말 피와 금승(金蠅)을 무서워한다.	×	백마 피 뿌리고 금구 치기	돈	富
76	×	×	×	섬기기	- 도깨비에게 성의를 다해야 한다. - 수수떡을 좋아한다. - 영감, 참봉, 아차로 높여 부른다.	×	×	×	×
77	김원산	집	성교	섬기기	- 각 집마다 도깨비가 있다. - 살아있는 귀신이다. - 여자를 탐한다.	시키는 대로 하기	×	×	富
78	아들	길	×	×	- 도깨비가 아닌 천 년 묵은 구렁이 - 통편을 싫어한다.	통편	문기(확인)	돈	富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각편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도깨비를 만나는 과정'과 도깨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도깨비를 퇴치하는 과정'이 활발한 변이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은 대부분이 남성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깨비와 사귀는 각편과 주인공이 도깨비를 섬겨서 부를 축적하거나 도깨비의 말을 엿듣고 부를 획득하는 각편이 전승되는 반면 여성과의 성교를 목적으로 한 도깨비가 여성에게 부를 획득하게 하는 각편¹⁴⁾이 전승되기도 한

다. 때문에 ‘도깨비를 만나는 과정’에서 ‘만남 매개’와 ‘만남 계기’에 따라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¹⁵⁾

또한 ‘도깨비를 퇴치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도깨비에게 싫어하는 것을 묻거나 주인공의 기지에 의해 또는 옛들은 내용을 실행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도깨비의 대응’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도와주는 인(참)도깨비인지 아닌지에 의해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¹⁶⁾

따라서 본고는 주인공과 도깨비의 만남 과정에서 ‘만남 매개’, ‘만남 계기’와 ‘도깨비의 대응’에 따른 변이 양상을 분석하고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설화 권역의 설정을 염두에 두면서 권역을 구분하기로 한다.¹⁷⁾

- 14) 김종대는 도깨비의 성격에 호색성(好色性)이 강조되는 것은 도깨비와의 상호교환관계 근거하여 성관계를 담보로 하는 교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도깨비는 성적 만족을 얻고, 여성은 이로써 재물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깨비는 남성적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김종대(1994),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pp. 81-82. 하지만 민담의 특성상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함으로 인해 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강조하여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들은 가난한 과부이거나 가난한 집의 딸들이다. 이들이 성을 담보로 부를 획득한다는 설정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각박한 현실을 상상적 존재인 도깨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환상이 주어진 문제를 간접적이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하층민의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 15)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이유는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이야기에서는 도깨비가 지닌 신성성과 요괴성의 양가적 성질 중 다른 이야기와는 달리 신성성이 강조되어 환각이나 환상류에 속하지 않는, 즉 사람 형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최인하(1989), 『한국민속학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pp. 100-101.
- 16) 김종대는 도깨비의 성질을 유형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깨비의 성질을 통일된 성격으로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심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화자의 경험적 내용이나 지역간의 특성이 표현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통시적인 도깨비의 개념의 변화 때문이라 보고 있다. 김종대(1994), pp. 36-39. 하지만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는 도깨비의 어리숙함이 강조되면서 인간을 도와주고자 하는 선택이 ‘도깨비의 대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7) 제주도에서 채록된 각편 78 <돈으로 원수 갚은 구렁이>는 도깨비가 아니라 뱀으로 구연하고 있다. 다만 이야기의 구조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구조와 동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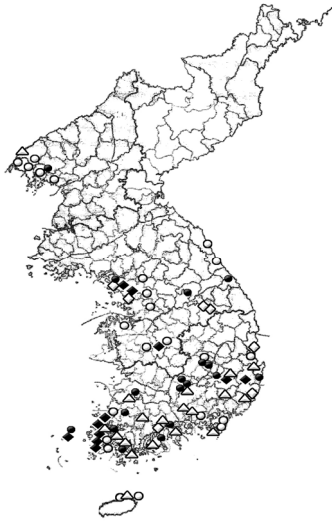
2.1. '만남 매개'에 따른 유형 분포 및 권역 구분

<도깨비 사귀어 덕보기> 설화의 도입부는 주인공의 상황이 묘사된다.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富의 결핍상태에 놓여있다. 때문에 도깨비와 사귀어 부를 획득하기를 원한다. 도깨비는 어리석고 우둔하며 융통성이 없어 그 성정을 잘 이용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주인공들은 이러한 도깨비의 성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¹⁸⁾이나 내기를 통해 도깨비와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며, 도깨비의 우둔함을 이용하여 도깨비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빌리기도 한다. 물론 목적 없이 우연한 계기로 만나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부의 결핍에 의해 집을 떠나는 행보(行步)에서 도깨비를 만나게 된다. 이를 지도상에 기호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도깨비와의 만남에 매개가 되는 '음식'을 ●로, '돈 빌리기'를 ◊로, '조우'와 '내기'를 ◆로, '성교'는 ▲로, '매개 없이' 만나는 각 편은 ○로 기호화하여 나타내었다. '만남 매개'가 분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깨비 사귀어 덕보기>의 변이를 권역화해 보면 [그림 1-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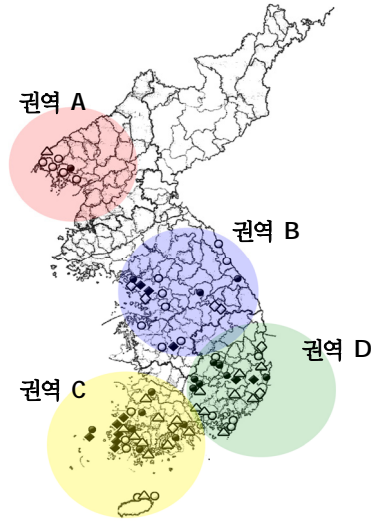
평안도 일대로 구분되는 <권역 A>는 '음식'(각편 4)과 '성교'(각편 3), 특별한 만남의 매개 없이(각편 1, 3, 5, 7) 이미 도깨비를 만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때문에 만남의 매개가 없는 각편들은 도깨비를 떼어 내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전승되며 가장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다. 우

되 도깨비가 뱀으로 대체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 18)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메밀묵이다. 메밀은 한밭이나 추위에 적응이 높아 한반도에서 식량원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하층민의 주식일 가능성도 높다. 메밀을 제물로 바치는 도깨비고사를 주목한다면 통일 신라 말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김종대(1994), p. 227. 지역에 따라서 개고기, 말고기, 부엉이고기, 팔죽, 수수떡을 좋아하는 것으로 전승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음식 또한 하층민의 식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간을 좋아하는 것은 도깨비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의례에서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어 도깨비고사의 잔존(殘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만남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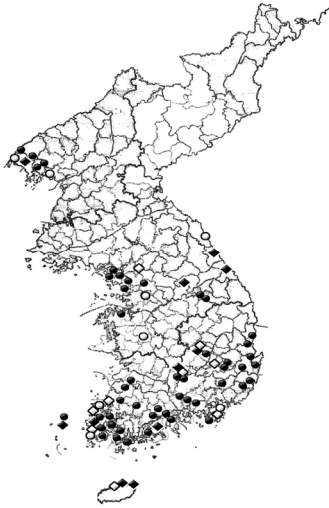
[그림 1-1] 만남 매개

리나라 중부권에 속하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권역 B>에 해당된다. <권역 B>는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데도 전승되는 각편이 적다. 그러나 ‘성교’의 매개가 전혀 전승되지 않으면서 ‘음식’(각편 8, 16, 19), ‘돈 빌리기’(각편 9, 11, 20, 21), ‘조우’(각편 10), ‘내기’(각편 12, 24), ‘매개 없는’(각편 13, 15, 17, 18, 22, 23, 25) 각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권역 C>는 전라도 일대로 가장 좁으면서도 가장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다른 화소와는 상대적으로 ‘성교’(각편 27, 31, 33, 35, 45, 47, 49, 50, 51, 77)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경상도를 아우르는 <권역 D>는 <권역 C>에 비하여 ‘성교’(각편 57, 63, 66, 68, 70, 74, 75)의 분포가 다소 적지만 다른 화소들에 비해 <권역 C>와 더불어 ‘성교’의 분포가 <권역 A>, <권역 B>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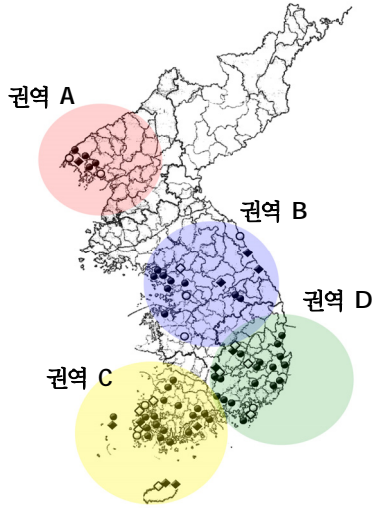
2.2. '만남 계기'에 따른 유형 분포 및 권역 구분

도깨비를 만나는 계기는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유형 구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²⁰⁾ 전술하였듯이 도입부에서 이미 도깨비를 사귀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여 사귀기도 하는가 하면, 도깨비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우연히 도깨비가 하는 말을 엿듣고 그대로 행동하여 부를 획득하는 경우, 또는 아무런 계기 없이 도깨비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²¹⁾ 이를 지도상에 기호화하면 [그림 2]와 같다.

-
- 19) 윤승준은 <모르면서 점장으로 성공> 유형의 변이 양상을 토대로 설화문화지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논자 또한 <모르면서 점장으로 성공> 유형의 설화권을 구분하였다. <모르면서 점장으로 성공> 유형의 설화권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아우르는 권역을 <권역 A>로, 전라도와 충청북도 일부를 아우르는 권역을 <권역 B>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되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지역을 <권역 C>로, 영남대륙을 중심으로 한 권역을 <권역 D>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각 화소가 지역을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권역에 따른 각 서사 단락의 결합 양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권역이 중심이 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윤승준(2017), 「설화의 지역적 특성 연구와 설화문화지도: '234-1 모르면서 점장으로 성공' 유형의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vol 5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참조.
- 20) 도깨비를 만나는 계기에 영향을 미치는 도깨비의 출현 공간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동권은 도깨비가 음성이기 때문에 음습한 곳에서 출현한다고 논의하였고, 임동권(1971), 『한국민속학 논고』, 집문당 참조. 최인학은 일본에서 도깨비의 출현 장소에 따라 분류안을 채택하고는 있는데, 일본에서는 장소에 따라 각각의 도깨비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라 출현장소에 따른 분류는 의미 없다고 보았다. 최인학(1989), p. 91. 하지만 이와는 달리 김종대는 1991년 3월 문화재단연구소에서 설문한 내용을 토대로 출현 장소를 통계적으로 검토하여 출현 장소와 출현빈도, 출현유형을 도표화 하였는데, 최인학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깨비가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물가나 바다에서 출현하는 도깨비의 출현이 주로 전남의 해안지방에서 조사된 바에 대해서는 도깨비의 고사나 이와 관련한 신앙 습속의 잔존과 밀접할 것이라 짐작한 바 있다. 김종대(1994),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pp. 40-41. 이러한 출현 장소의 선행 연구를 통한 논자의 추측은 민속권과의 비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설화의 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은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림 2] 만남 계기



[그림 2-1] 만남 계기

[그림 2]에서 ‘만남 계기’가 주인공과 도깨비가 ‘사귀기’의 경우는 ●로, 우연히 도깨비 말을 ‘엿듣기’는 ○로, 도깨비를 신으로 ‘섬기기’는 ◆로, ‘계기 없는 만남’으로 도깨비가 주인공을 돕는 경우를 ◇로 기호화하였다. ‘만남 계기’에 따른 변이를 권역화해 보면 [그림 2-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로 ‘만남 계기’는 전국적으로 ‘사귀기’가 우세하게 분포되어 있다. <권역 A> 또한 ‘사귀기’(각편 3~6)가 주로 전승되는 반면 ‘계기가 없는

21) 만남의 계기가 없는 각편은 14, 30, 37, 39, 58, 61, 65, 71, 78로, 9편이 전승된다. 아무런 계기가 없이 도깨비가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 것으로 구연되고 있다. 다만 각편 30, <도깨비 돈으로 산 땅>은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땅을 사야 된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구연되고 있고, 각편 71, <도깨비와 착한 며느리>는 다른 이야기와는 다르게 도깨비가 덕을 쌓아야지만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 도깨비의 믿음에 의해 인간을 돕고 있으며, 각편 78, <돈으로 원수 갚은 구렁이>는 도깨비가 아닌 뱀으로 구연되고 있어 만남의 계기가 생략되어 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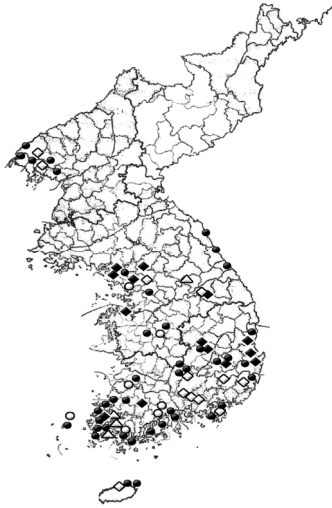
만남’은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권역 B> 또한 흔재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사귀기’(각편 8, 9, 10, 11, 12, 15, 20, 21, 22, 23, 24)가 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역 C>는 ‘사귀기’(각편 26, 27, 28, 29, 31, 33, 34, 35, 41, 43, 44, 45, 46, 47, 48, 49, 50, 51)가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으나 다른 권역과는 상이하게 ‘섬기기’(각편 32, 36, 42, 76, 77)의 분포가 두드러지고, <권역 D> 또한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사귀기’(각편 52, 53, 54, 55, 56, 57, 59, 60, 63, 66~70, 73~75)가 우세하게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주인공이 도깨비와 사귀어서 부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이야기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만남 계기’는 전국적으로 ‘사귀기’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권역 C>에서 다른 권역과는 다르게 ‘섬기기’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것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적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민속권과 비교를 통하여 자세히 후술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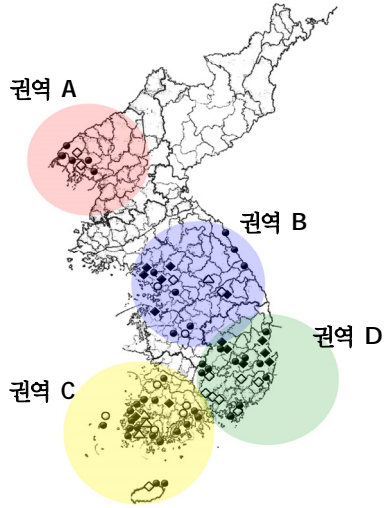
2.3. ‘도깨비의 대응’에 따른 유형 분포 및 권역 구분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는 전술하였듯이 도깨비와 만나는 과정과 도깨비를 퇴치하는 과정이 서술된다. ‘도깨비의 대응’은 도깨비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에게 이용당했다고 여긴 도깨비가 보복하는 방법이 전승된다. 도깨비와 사귀 주인공들은 도깨비의 돈으로 땅을 구입하여 부를 축적하였다.²²⁾ 그래서 도깨비는 그 땅을 떼어가려고도 하고, 풍년을 방해

22) “도깨비가 갖다 준 돈은 다른 살림을 장만하면 틀려. 언제 틀리든지. 도깨비가 또 틀리게. 조간만 잘못 헨다치면 도로 뺏어가버려라우. 그렇게 땅을 사야. 니(四) 귀에 다 말뚝 박고이 우리가 준 돈이라고. 돈으로 땅을 샀다고 땅을 떠간다고, 말이 니 귀에 말뚝 박고 떠간다고. 그러다고 그런디 땅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요.” 「도깨비 돈으로 산 땅」, 『대계』 6-2, p. 787; “여기 있다고 자꾸 주이, 큰, 이넘 부자가 뒷부렸어. 그래가 부자가 딱 되고, ‘아이! <큰 소리로> 이놈의 거 이거 토째비 이거 얻은



[그림 3] 도깨비의 대응



[그림 3-1] 도깨비의 대응

하기 위하여 농사를 망치려고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주인공의 기지에 의해 풍년이 되는 한편, 돈을 싫어한다는 주인공의 말을 듣고 돈을 가져다주기도 하며, 도깨비의 대응이 없는 경우도 전승되고 있다. 이를 지도상에 기호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도깨비의 대응’이 ‘땅 떼기’로 구현되는 각편은 ◆로, ‘농사’는 ○로, ‘돈’은 ◇으로, ‘도깨비의 대응’이 없는 것은 ●로, 그리고 ‘도깨비의 대응’이 성공한 각편은 ▲로 기호화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전국적으로 ‘도깨비의 대응’이 없는 각편(각편 1, 2, 3, 4, 7, 10, 13, 16, 17, 18, 19, 22, 25, 26, 28, 29, 30, 31, 32, 36, 37, 38, 39, 40, 41, 42, 44, 46, 47, 52, 53, 55, 57, 58, 62, 64, 66, 71, 72, 73, 76, 77)이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향유층들은 어리

돈 마 이를 밋이 해야 된다. <본래 소리로> 파아(땅에) 녹어야 된다. 눈을 사야 된다.’ 눈을 샀그던.” 『토째비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자된 사람』, 『대계』 7-2, p. 164.

숙한 도깨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상이하계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다른 아닌 도깨비라는 간절함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연자들은 인도깨비 또는 참도깨비로 다른 도깨비들과 구분하고 있다. 이는 도깨비의 신성성이 쇠퇴하여 어리숙한 도깨비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의 기층의식 속에 여전히 富神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게 한다.²³⁾

한편 전술하였듯이 <권역 C>와 <권역 D>는 다른 권역과 달리 도깨비와의 만남 매개가 ‘성교’인 각편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이는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로, 도깨비를 역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²⁴⁾ 도깨비와 성교를 한 여성들은 몸이 여윈다. 여성들은 몸이 여위기도 하고 부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떨어진 도깨비를 쫓아낸다. 이때 ‘도깨비의 대응’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여성을 비방(誹謗)할 뿐이다.

“동네 사람들아. 부부간에 정담하질 말소. 아무것이는 이러이러했더 마는, 이년이 말피를 갖다가 뿌려서 나 할멈한테 못 가고 도망간다고.”

『대계』 6-3, <도깨비와 과부>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들어보게. 정들었다고 정엿말 맡게. 정들었다고 정엿말 했드니 이별수가 들었네.”

『대계』 6-5, <도깨비 이야기>

23) △로 기호화한 각편 19, 48, 51, 66은 ‘도깨비의 대응’이 없거나, 농사를 망치는 것으로 구연된다. 하지만 ‘도깨비의 대응’에 기호화한 것은 ‘도깨비의 대응’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신으로서의 도깨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 C>는 다른 권역에 비해 도깨비의 양가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24) 이에 김종대는 도깨비굿과 비교 논의한 바 있다. 김종대(1994),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참조.

“동네 사람들 지집하고 정답다고 속에 있는 말 다 하지 마라”고 씬서 갔다.

『한국구전설화 10』, <도깨비 신랑>

부부 사이의 정을 통한 도깨비는 신의(信義)가 없는 여성을 비방하면서 여성을 떠나게 된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서 도깨비는 인간화되어 나타나 남성과는 친구 사이의 관계를 맺고 여성과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도깨비가 인간으로 출현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鬼이지만 인간 세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인간 세계는 이질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도깨비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도깨비가 지닌神通력으로 인간을 돕기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도깨비가 보복하기보다는 그저 비방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설화권, 방언권, 민속권 비교

문화권역은 인류학에서 말하는 ‘문화영역’(culture area)과 ‘문화권’(Kulturkreislehre)의 개념을 종합한 것이다. 즉 특정 문화 요소를 내포하는 지리적 영역을 통칭한다.²⁵⁾ 이에 본고에서는 설화권, 방언권, 민속권의 비교를 통해 2장에서 제시한 설화 권역을 공고히 할 것이다. 문화권역은 한 분야에 국한되어 논의할 수 없다. 때문에 방언권과 민속권의 비교를 통해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설화 권역의 당위성이 입증될 것이다.

25) 윤승준(2017), p. 21.

3.1. 설화권과 방언권

등어선은 언어지리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말선’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말선은 단순히 지역경계선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을 이룬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면서 발전시켜 온 언어생활의 차이로 할 수 있다. 때문에 등어선을 통해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언권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도깨비는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린다. 도깨비는 ‘독갑이’, ‘도까비’, ‘도째비’, ‘토깨비’, ‘토째비’, ‘허까비’, ‘홀깨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깨비의 어원은 15세기에 사용되는 ‘뚝가비’이다. “17세기 어형 ‘독갑이’는 16세기 초에 음절 말/ㅅ/의 발음이 /ㄷ/과 같아짐에 따라 ‘뚝가비’의 /ㅅ/이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뒤에 오는 /ㄱ/에 동화된 것이다(뚝가비 > 뚝가비 > 독가비). 따라서 그 발음은 <도까비>로 같다. 표준어 ‘도깨비’는 ‘독가비’에서 /모음 역행동화된 것이다.”²⁶⁾ 때문에 등어선을 통해 설화 권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도깨비와 같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어휘를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이야기에서 찾아 비교해야 할 것이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 나타나는 /모음 역행동화의 어휘는 ‘여위다’이다.

도깨비는, 참도깨비는 장 암돌 숙돌(숫돌)로 찌아서(끼워서) 아는 땀에(때문에), 담을 쌓는 땀에 평상(평생) 안 허물어진다 쿠데(하데). 암돌하고 숙돌하고 딱딱 맞차서(맞추어서) 놓은께. (충중: 돌도 암돌 있고 숙돌 있고.) 돌도 그렇단다. 암돌 있고 숙돌 있다다. 그래서 마, 만장돌(많은 돌)이 쌓아도 마 안 허물어지고, 곡석(곡식)을 해서 고방을 지이(지어) 놓고, 곳집을 지이 놓고, 또옥 곡석을 해서 그리 지아 놓고, 그래 묵

26) 이상규·신승용(2010), 『문학 속의 경상 방언』, 글누림출판사, 2010, p. 203.

고 산단 말이제. 묵고 살제. 그래 인자 저거 아버지도 퍼 묵고, 문당이 노름도 잘하고, 아아가 그만 바싹 몰라(말라) 죽겼단 말이지. 그래, “아가, 뒷을 우째 갖고 양식(양식)을…” 인자 그 때사 인자, 양식을 묵으며 우째 하느냐고 그란께, 그래 이박(이야기)을 해.

『대계』 8-2, <참도깨비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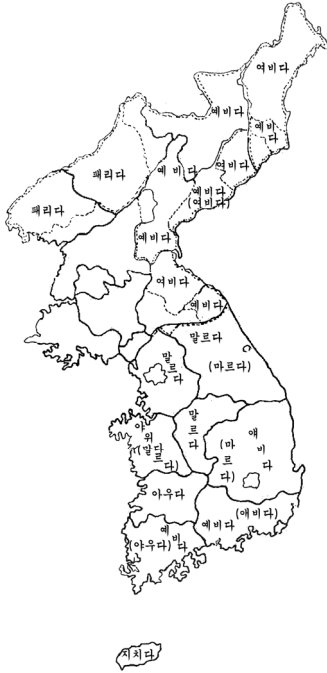
저 옛날에 참 도깨비 신랑을 한께니 기럽은 기 없어. 그래서 토깨비가 떨어지며 싹 가아 가는 기라. 떨어지며 고마 그 토깨비가 온 물건, 싹 고마지가 싹 어느 새 가아 가도 가 가는 기라. 그래 이웃 사람한테, “내가 토깨비 신랑을 한 십 년 하고 난께 무다이 내가 철골도 모르니 우찌 해야 될고요?”

『대계』 8-3, <도깨비 쫓기>

내가 토깨비 이야기를 할라 켜제. 토깨비가, 토깨비하고 한 처녀 하나 하고, 참 친했더래요. 친해 논께, 이 토깨비를 암-무리 땄라고 케도 땄 재주가 없어. 도깨비와 질기 지내면 사람이 애빈다네. 그래 인자 토깨비를 고만 그때는 인자 땄라고. 귀찮아서 땄, 머 개구리니, 뱀이니 머 자꾸 잡아다 걸어썸체. 귀찮아서 인자 그마, 그리 인자 때블라고 말이라.

『대계』 8-5, <도깨비와 처녀>

<참도깨비의 사랑>의 주인공은 외파로 집에서 노름꾼 아버지와 사는 딸이다. 아버지는 집안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엄두리 총각이 쌀 한 섬을 들고 들어오더니 딸의 신랑 노릇을 하게 된다. 때문에 도깨비의 능력으로 고방과 곳집을 지으며 살림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그 이유를 묻고 있다. <도깨비 쫓기>의 주인공은 도깨비를 신랑으로 삼아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하지만 도깨비와 10년 동안 정을 통하니 점점 몸이 여위어 갔다. 그래서 도깨비를 떼어내기 위해 남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도깨비와 처녀>의 주인공은 도깨비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오랜



[그림 4] 여위다[O-wi-da]의 방언분포도

되고 있다. [그림 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같은 의미로 ‘패리다’, ‘예비다’, ‘여비다’, ‘말르다’, ‘애비다’, ‘애비다’, ‘아우다’, ‘야위다’, ‘지치다’로 9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중세어형이 오늘날과 다르지 않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패리다’는 평안북도의 방언으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중부에 나타나는 ‘마르다’는 ‘므르다’가 어원으로, ‘여빅다’와 마찬가지로 15세기 문헌에 나타난다. ‘므르다’는 17세기에 ‘·’가 ‘-’로 변화되면서 ‘므르다’로 변형되고, ‘·’가 ‘ㅏ’로 변화됨에 따라 18세기에 이르러 ‘마르다’로 변형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므르

시간 친하게 지내다 보니 몸은 여위어 가고 도깨비를 떼어내려 해도 떼어낼 수 없는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도깨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몸이 여위는 것이다. 때문에 구연자들을 그 지역의 방언을 통해 주인공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즉, <참도깨비의 사랑>에서는 ‘몰다’, <도깨비 쫓기>에서는 ‘모르다’, <도깨비와 처녀>에서는 ‘애비다’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위다’의 방언 분포도를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²⁷⁾

‘여위다’는 ‘뚝가비’와 마찬가지로 15세기부터 현재까지 사용

27)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269.

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ㅁㄹ다(15~19세기) > ㅁㄹ다(17~19세기) > 마르다(18~20세기)²⁸⁾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홀모음 ‘·’가 점차 없어짐에 따라 일어난 모음체계의 변화는 모든 방언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르고 늦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함경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역에 나타나는 ‘여위다’의 어원은 ‘여빅다’이다. ‘여빅다’에서 ‘여위다’로 변형되었는데, 여위다는 “太·탱子:중 | 너·기사되 여·원 모모로 쫓 《석보삼39ㄴ5》에 나타나고 있다. (여빅다 > 여위다) ‘여위다’는 중세국어에서 ‘고갈’(枯渴)과 ‘수척’(瘦瘠)의 의미로 쓰여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대부분이 ‘수척’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ㅁㄹ다’에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여위다’와 ‘ㅁㄹ다’는 유의관계에 있었으나 ‘여위다’의 ‘수척’의 의미만 ‘ㅁㄹ다’에 통합되어 그 의미가 축소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²⁹⁾ [그림 4]는 모음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체계의 변화,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언어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위다’의 변형과정에서 ‘움라우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움라우트’란 뒷모음 <ㅌ, ㅓ, ㅑ, ㅓ, >가 모음 <i>나 반모음적인 <yj>의 영향을 받아 앞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4]에서는 ‘예비다’와 ‘애비다’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서 도깨비와 마찬가지로 / /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28)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020.05.08.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4640&viewType=confirm.

29)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 변천』, 박이정, pp. 286-287 참조.

30) 물론 ‘예비다’와 ‘여빅다’에 한정되어 / /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나타나며, 78편의 각편 중 <참도깨비의 사랑>, <도깨비 쫓기>와 <도깨비와 처녀>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있어 한계를 지닌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의미의 단어사용을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개별 단어의 역사적 단계를 재구하며 어휘의 변천을 도모하였던 방언학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심리적 원인과 관계하여



[그림 5] 조선말 방언의 기본구획

지역, 그리고 제주 방언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³²⁾

이를 토대로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권역 구분과 비교해 보면 그 구역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역 A>는 서북 방언 지역에 해당되며, <권역 B>는 중부 방언 지역, <권역 C>는 서남 방언 지역, <권역 D>는 동남 방언 지역에 해당된다.

<권역 A>는 ‘패리다’를 사용하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서도 다

김병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선택하여 방언의 기본구획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림 5]는 논자가 제시하는 방언의 기본구획이다.³¹⁾ 북쪽에서는 함경남도와 평안 남·북도의 경계를 이루며 내려오는 낭림줄기의 행정경계선과 남쪽에서는 소백산줄기와 섬진강 하류를 따라 경상북도를 경계 짓는 선으로, 크게 동부 방언 지구와 서부 방언 지구로 나누었다. 동부 방언 지구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북 방언 지역과 동남 방언 지역이며, 서부 방언 지구는 서북 방언 지역과 중부 방언 지역, 서남 방언

개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될 수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31) [그림 9]의 결과는 가위, 거마리, 겨드랑이, 고양이, 그을음, 개암, 게으르다, 귀밀, 귀두라미, 꿩이, 나중, 누에, 냉이, 마르다, 멀치, 모이, 무, 박쥐, 병아리, 뱀장어, 뱀다, 새우, 생강, 추워서, 갈치, 켜다, 키, 확, 여위다, 오이, -디 (습, 읍)니다, 거짓말, 가르치다, 강냉이, 고추, 그네, 계사니, 능쟁이, 반디벌레, 부루, 사라구, 새끼, 잡자리, 줄리다, 종다리, 지렁이의 방언분포도를 토대로 분포지역을 구획한 것이다. 김병제(1988), p. 209.

32) 김병제(1988), p. 210 참조.

른 지역과는 달리 남성 주인공이 황가이국이나 뜨거운 물을 부어 도깨비를 죽이고 부를 획득하는 독자적인 유형이 전승되고 있다.³³⁾

<권역 B>는 경기, 강원, 충청도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므르다’, ‘마르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르’이 탈락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마르다’의 변화과정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도깨비와 사귀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도깨비의 우둔함이 강조되어 도깨비에게 돈을 빌리든지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친분을 유지하게 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혼재되어 전승되는데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통해 조선 후기 경제 구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는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였다.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동은 필연적이었으며, 이에 농민계층의 분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유로 소작민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과도기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된다.

<권역 C>는 전라도 지역으로, ‘아우다’, ‘예비다’를 사용하고 있다. ‘예비다’는 도깨비와 마찬가지로 / | /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보이는 권역이다. 즉 15세기 어형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이야기가 가장 집약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과 상이하게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가 대별되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남성 주인공은 우연히 도깨비를 만나기도 하지만 음식을 대접하여 도깨비를 섬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의 직업은 어부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깨비에 대한 풍어신적 신앙이 드러나 신성성이 더욱 강조되

33) <권역 A>의 각편 3, 4, 6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권역에서는 도깨비가 황가이국과 짐승 피를 싫어하며, 도깨비를 죽일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도깨비의 대응’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

어 전승되고 있다. 섬김의 대상이 된 도깨비는 물고기를 몰고 와 만선이 되게 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³⁴⁾

반면 여성 주인공은 도깨비와 사귀어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는 성과 재물의 상호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이를 고려 시대의 문란했던 남녀 간의 풍속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³⁶⁾보다도 15세기의 어형을 아직까지 사용한다는 점과 신성적 속성을 지닌 도깨비가 속세적인 속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도깨비에 대한 민속적 위상의 변이가 더 타당해 보인다. 물론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행하고 있는 도깨비고사의 전승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 D>는 경상도 지역으로, ‘애비다’, ‘예비다’, ‘애비다’, ‘마르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 권역 또한 <권역 C>와 마찬가지로 / /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보이며, 15세기 어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권역에서도 여성 주인공과 도깨비가 사귀어 부를 축적하는 유형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더욱이 이 유형이 <권역 C>와 근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³⁷⁾ 이러한 현상은 <권역 C>에서 전파되어 <권역 D>에서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3.2. 설화권과 민속권

민속권은 같은 대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구역을 일컫는다. 민간

34) <권역 C>의 각편 32, 36, 42, 76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각편은 남성이 주인공이며 도깨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도깨비의 대응이 생략되어 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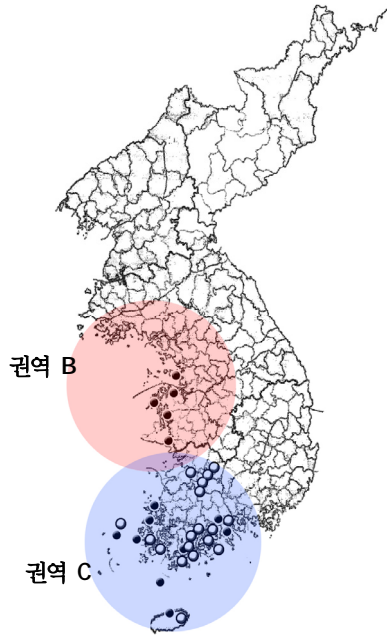
35) <권역 C>의 각편 27, 31, 33, 35, 45, 47, 49, 50, 51이 이에 해당된다.

36) 김종대(1994), p. 127.

37) [그림 1-1] 참조.

신앙은 민간 생활과 결부되어 기층문화를 형성한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도깨비는 부신, 풍어신으로써 어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하지만 도깨비의 양가성으로 인해 역신, 화재신으로도 전승되고 있어 흥미롭다. 같은 대상을 섬기기도 퇴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깨비의 이러한 양가성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림 6]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도깨비 신앙의 분포를 기호화한 것이다.³⁸⁾ 지도에 기호화된 ●은 도깨비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은 도깨비를 ‘퇴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역이다.



[그림 6] 도깨비고사의 분포 양상

38) [그림 10]은 문무병·박종성(2003), 「제주도 도깨비」, 『한국학논집』 3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경엽(2004), 「서남해의 갯제와 용왕신앙」,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송기태(2009), 「도깨비신앙의 양가성과 의례의 상대성 고찰」, 『남도민속연구』 22, 남도민속학회; 김종대(2012), 「서해안과 남해안지방 도깨비신앙의 전승양상과 그 변화」, 『한국민속학』 56, 한국민속학회; 송기태(2017), 「서남해 바다의례에 나타난 도깨비의 풍어신적 면모와 위상」, 『한국민속학』 65, 한국민속학회에 언급된 지역을 지도에 기호화한 것이다. 다만 제주도 지역에는 도깨비를 모시는 신당이 상당수이지만 본고는 대상 설화에 나타난 도깨비의 양가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양가적인 특성만을 주목하여 기호화하였다. 물론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연구·보고된 자료만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진 도깨비고사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활발히 전승되었기 때문에 <권역 C>와 <권역 D>의 경계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깨비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례에서는 도깨비의 풍어신적 위상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예는 흑산도의 갯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흑산도의 심리 갯제에서는 음력 7월에 독제를 지낸다. 이 시기에 독제는 바다에 생을 의존하기 때문에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의례이다. 특히 제물 준비에서는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그 만큼 크고 성대하게 치르는 의례라는 것이 강조된다. 당일 아침, 하당에서 제관들이 ‘헌석배’라고 부르는 의례용 배에 제물을 넣고 술을 따르며 마을의 안녕과 풍어, 어로 안전을 비는 축원을 ‘유황님’에게 한다. 고사가 끝난 후에는 헌석배를 바다에 띄어 보내는데 “물속에 있는 유황님에게 고기를 잘 몰아다가 동네에다 몰아주십사.”하고 빈다. 이러한 심리마을의 독제는 1970년대 이전에 중단되었다고 한다.³⁹⁾ 이 의례의 ‘유황님’은 도깨비를 뜻한다. 이러한 헌식 의례는 도깨비를 섬기는 의례에서 행해졌으며,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큰 축제적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권역 C>에 해당하는 전라도 지역에는 어장 근처에 도깨비당을 지어 고사를 지냈다는 보고가 있으며, 서남해안지역의 갯제에서는 “물아래 진서방~”하고 길게 3번 부르고 풍어를 기원하기도 하였다.⁴⁰⁾ 이렇듯 도깨비를 섬기는 의례는 <권역 B>와 <권역 C>에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지만 <권역 B>에서는 도깨비가 ‘섬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권역 C>에서는 ‘퇴치의 대상’으로서의 도깨비가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흥 회진면 대리마을의 개부르기 과정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유형과 유사한데, 도깨비가 해산물을 가져다주었으니 그 답례로 농약을 치겠다고 한다. 이는 도깨비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의 팽과리 소리로 도깨비를 퇴치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⁴¹⁾ 이렇듯 도깨비를 속이는 것은 인근 마을의 노력도 섬에도 나

39) 이경엽(2004), p. 216.

40) 송기태(2017), pp. 170-172.

41) 송기태(2017), p. 181.

타나며, 고흥 나로도에서도 볼 수 있고,⁴²⁾ 진도, 순천, 광양, 보성에 전해지는 삼설양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³⁾ 제주도의 영감놀이 또한 현재는 질병퇴치를 위해 행해지고 있다.⁴⁴⁾

이러한 도깨비를 대상으로 하는 의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성이 제의를 주관한다는 점이다.⁴⁵⁾ 대표적으로 진도의 도깨비굿이나 가사도의 도깨비굿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월 그믐 자정을 넘겨 동구앞에 제상을 차리고, 2월 초하루부터 여성들이 모여 이를 동안 각각의 집을 돌아다니며 굿을 하게 되는데, 선두에 선 사람이 월경이 묻은 속곳을 장대에 꽂고 대열을 인도한다. 이렇게 이를 동안 가가호호 액귀를 몰아내고는 깨끗한 여성이 음식을 장만한다. 그렇게 한바탕 놀고 나서 마을 어귀에 모여 절을 하는데, 이것을 “도깨비가 절하고 나간다”고 한다. 이후 나무로 깎아 만든 배에 액을 실어 보내는 것으로 도깨비 굿은 끝이 난다.⁴⁶⁾ 결국 도깨비굿은 도깨비를 쫓고 부정적인 월경피를 통해 액귀를 몰아내는

42) 송기태(2017) 참조.

43) 송기태(2009), p. 182.

44) 제주도의 영감놀이는 풍어를 기원하는 당굿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해녀, 과부를 탐하여 빙의를 했을 경우에 도깨비를 퇴치하기 위해 행해지기도 한다.

45) 여성이 도깨비고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동해안에 도깨비고사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점과 연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해안의 풍어제는 부산에서 강원도의 최북단 고성까지의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행하고 있는 ‘동해안별신굿’이다. 동해안 풍어제라 불리는 동해안별신굿은 주로 세습무에 의해 거행된다. 이는 동해안 지역이 지니는 지리적 요인과 관계한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갯벌이 많아 양식업이나 채취업이 성행할 수 있지만 동해안은 농지가 좁아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된다. 때문에 깊은 바다는 삶의 현장이자 경제적 기반의 장소이면서 어민들의 안전에 대한 한계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에 대한 신앙심일 것이다. 도깨비의 신앙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그 신성이 퇴색되어졌다. 인간이 현실적인 한계상황에 봉착되었을 때 의존할 수 있는 신의 신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세습무가 주관하는 별신굿이 성행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46) 이윤선(2001), 「가사도의 민속자료에 나타난 도서적용과 변화에 대한 고찰 — 당제와 도깨비굿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13, 한국도서학회, pp. 94-95.

축귀를 목적으로 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⁴⁷⁾ <권역 C>에서는 축귀를 목적으로 하는 의례가 우세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주인공이 정을 통한 도깨비를 쫓고 부를 축적하는 이야기는 민속적인 도깨비굿의 잔재라 판단된다.

하지만 <권역 D>에 해당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도깨비 신앙의 전승은 부진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종대는 육지의 도깨비 신앙이 서·남해안의 어업과 관련하여 전파되어 남성 중심의 제의를 통해 전승되다 여성과 관련을 맺는 <부자되기>가 먼저 제주도에 전파되어 영감놀이를 형성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관점은 <권역 D>의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 이야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⁴⁹⁾ 즉, 性이 매개가 되어 도깨비를 떼어내는 각편이 <권역 D>에 전파되어 전승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권에서는 그 문화권만의 특색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비록 한정된 양의 자료에서 민속권을 구분하였지만 2장에서 구분한 설화 권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도깨비 사귀어 덕보기>에 나타나는 최소한의 ‘문화적 표현방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권 안에서 설화가

47) 이경엽은 여성이 갯제를 주도하는 것은 갯제의 생산의례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생식력, 도깨비신앙과 여성의 관련성으로 해석하였다. 이경엽(2009), 「갯벌지역의 어로활동과 어로신앙」, 『도서문화』 33,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p. 247. 이에 김종대는 도깨비의 풍어신적인 면모가 갯벌의 조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고, 갯제에서 여성이 주도하게 된 것은 조개를 채취하는 작업층이 여성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으로 보았다. 즉 여성화된 갯제는 과거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때문에 도깨비굿에서 액을 물리치는 여성의 월경피가 묻은 속곳은 축귀의 상징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대(2012), p. 58.

48) 김종대(1993), pp. 253-263.

49) 경남 해안지방에서는 도깨비고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경남지방도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업이 발달하였지만 지금의 어로행위나 어로방식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일본인들이 전파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山望 등의 풍어점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김종대(1993), 「海岸地方 도깨비信仰의 傳承樣相에 대한 考察」,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p. 155.

적응하여 다른 지역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설화권역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방언권과 민속권의 비교를 통하여 그 설화권역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변이를 토대로 가설로 제시한 설화권역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은 해당 설화가 문화권이라는 특정 공간 속에서 오랜 기간 삶과 문화를 공동으로 축적해 온 공동체의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이 해당 설화에 나타나는 ‘문화적 표현’의 하나인 것이다. 때문에 방언권과 민속권의 비교를 통해 그 경계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는善하면서 가난한 주인공이 도깨비를 만나富를 획득하는 이야기이다. 즉 결손이 보상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 60편, 『한국민간전설집』 18편으로 총 78편이 채록·보고되었다.

채록·보고된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각편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도깨비를 만나는 과정’과 도깨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도깨비를 퇴치하는 과정’이 활발한 변이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다. 이에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의 하위유형에 영향을 주는 ‘만남 매개’, ‘만남 계기’, ‘도깨비의 대응’의 화소들을 지도에 기호화하여 나타낸 결과 평안도 일대로 구분되는 <권역 A>,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권역 B>, 전라도에 해당하는 <권역 C>, 경상도에 해당하는 <권역 D>로 권역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권역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방언권과 민속권을 비교한

결과 그 권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화권과 방언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 ‘여위다’의 분포도를 확인하였다. ‘여위다’는 도깨비와 마찬가지로 /ㅣ/모음 역행동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15세기 어형을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방언구획도 확인하였는데, 방언권 또한 설화권과 동일하게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설화권과 민속권을 구분하였다. 지금은 어로활동의 축소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는 도깨비고사의 분포를 지도에 기호화하였다. 물론 한정된 자료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보고된 바를 기호화한 결과 <권역 B>와 <권역 C>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권역 B>는 도깨비를 ‘섬기는 대상’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권역 C>에서는 ‘퇴치의 대상’으로 전승되고 있었다. 이러한 도깨비의 양가성이 <도깨비와 사귀어 덕보기>에 영향을 주어 하위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 <권역 D>에는 도깨비고사의 분포가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권역 C>와 <권역 D>의 경계에 여성 주인공의 ‘성교’라는 매개로 도깨비와 사귀는 유형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권역 C>에서 전파된 유형이 <권역 D>에서도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고 추론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방언, 민속, 설화는 공동체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문화를 이루는 요소이다. 특정 공간의 문화는 한 분야만을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다. 때문에 문화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요소들이 설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해명한다면 권역에 따른 기층의식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자 료】

-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종대(1994),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김종대(1981), 『한국의 도깨비』, 국립민속박물관.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 변천』, 박이정.
이상규·신승용(2010), 『문학 속의 경상 방언』, 글누림출판사.
임동권(1971), 『韓國民俗學論考』, 집문당.
임석재(1989~1991), 『한국구전설화』 1~12, 평민사.
조동일 외(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인학(1989), 『한국민속학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한국정신문화원(1980~1992), 『한국구비문학대계』 82책, 한국정신문화원.
Sydow, Carl Wilhelm von (1999), *Geography and Folk-Tale Oicotypes, International Folkloristics: Classic Contributions by the Founders Folklore*, edited by Alan Dundes, Rowman&Littlefield.

【논 저】

- 강은혜(1985), 「한국 도깨비담의 形成·變化와 構造에 關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종대(2012), 「서해안과 남해안지방 도깨비신앙의 전승양상과 그 변화」, 『한국민속학』 56, 한국민속학회.
김종대(1993), 「海岸地方 도깨비信仰의 傳承樣相에 대한 考察」,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 학회.
송기태(2009), 「도깨비신앙의 양가성과 의례의 상대성 고찰」, 『남도민속연구』 22, 남도민속학 회.
송기태(2017), 「서남해 바다의례에 나타난 도깨비의 풍어신적 면모와 위상」, 『한국민속학』 65, 한국민속학회.

문무병·박종성(2003), 「제주도 도깨비」, 『한국학논집』 30,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윤승준(2017), 「설화의 지역적 특성 연구와 설화문학지도: ‘234-1 모르면서 점장으로 성공’ 유형의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5.

이경엽(2004), 「서남해의 갯제와 용왕신앙」,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이경엽(2009), 「갯벌지역의 어로활동과 어로신앙」, 『도서문화』 33,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 연구원.

이운선(2001), 「가사도의 민속자료에 나타난 도서적응과 변화에 대한 고찰-당제와 도깨비굿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13, 한국도서학회.

최상수(1994), 「70년 걸린 본격구전설화의 채록자료집」, 『한국문학인류학』 26, 한국문화인류 학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020. 5. 8.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4640&viewType=confirm

원고 접수일: 2020년 4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0년 4월 30일

계재 확정일: 2020년 5월 7일

ABSTRACT

A Study on Setting Up the Regional Tale Zone of
<Getting on Well with *Doggaebi* and Getting Benefits>

Lee, Hye Ran*

This paper aims to come up with a hypothesis on the regional tale zone in the motif of <getting on well with *doggaebi* and getting benefits> and solidify the concept of the *kulturkreise* through the comparison of dialect regions, boundaries between two distinct linguistic regions and the areas of folklore. The main reason for the attempt to solidify the concept of the *kulturkreise* presented as a hypothesis based on variations of the motif of <getting on well with *doggaebi* and getting benefits> is that the tale of this type ret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which has accumulated forms of life and culture in a specific locality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re a part of the ‘cultural expression’ presented in the tales. However, as the concept of the *kulturkreise* is a hypothesis, the boundary line can be blurry. That is why this paper attempts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boundar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egions of dialect and the regions of folklore.

In order to identify the boundaries of each area of culture, the variation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ankook University

of each version are derived and marked with signs on the map. The process in which ‘the hero comes across the *doggaebi*’, accumulates wealth by taking advantage of the *doggaebi* and gets rid of the *doggaebi*, shows a wide range of variety;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getting rid of the *doggaebi*, the countermeasures of the *doggaebi* against the hero are varied and comprise the type of tales. The areas of the corresponding tales are demarcated and presented as follows: region A comprising Pyeongan-do, region B comprising Gyeonggi-do, Gangwon-do, and Chungcheong-do, region C covering Jeolla-do, and region D covering Gyeongsang-do.

As the concept of the regional tale zone is hypothetical, by comparing the distribution of the dialect variations of the word “*yeowida*” with the regions of dialect, it is confirmed that the two regions overlap. In addition, the forms of the words of the 15th century are still used in <getting on well with *doggaebi* and getting benefits>. By marking signs on the map based on the *doggaebi-gosa* now in decline and identifying their distributions, in Region B,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at the *doggaebi* appears as “the object of serving”, while in Region C, the concept of *doggaebi* as ‘the objective of eradication’ is dominantly passed down to posterity, and is presumed to contribute to formation of the type of <getting on well with *doggaebi* and getting benefits>. Therefore, this paper confirms that tales express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 them in a specific locality, and comes up with the possibility of at least finding out ‘the method of cultural expression’.